



◀36년 된 음반가게 '명음사'가 소장한 LP 음반들. 왼쪽부터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비디스, 지휘자 모리시카, 나나 무스쿠리, 밀바, 패티김, 배호의 음반과 작곡가 길옥윤이 직접 부른 노래 음반.

지지~익 추억의 LP 다시 돈다

광주, 시간속을 걷다
 <26> 1980년 명음사



클래식 사랑하던 이선호 사장
 총장로 美 공보원 동호회 활동

LP 음반 5천장 반쯤 안하고 보관
 전국 수집가들 보물 찾으러 방문



LP 음반을 사던 시절이 있었다. 총장로에 나오면 레코드 가게를 순례하는 게 작은 즐거움 중 하나였다. 여러 가게 중 자주 드나들던 곳은 총장로 1가 입구 사모아 레코드, 클래식, 가요, 팝송 등 다양한 음반들을 구매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레코드 가게에선 편지 테이프를 만들어줬다. 좋아하는 곡 리스트를 주면 '멋진 나만의 테이프'를 가질 수 있었다.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나오는 노래를 녹음하다 정당한 DJ 멘트에 한숨 쉬던 이들에게는 요긴했다. 음반 가게마다 자체 선곡해 제작해 놓은 테이프가 딱 마음에 들 때면 하나씩 구입하기도 했다.

음원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다. 유명 가수들도 정규 앨범을 내놓는 게 어렵다. 미니앨범도 귀하고 싱글이나 음원 발매만 하는 경우도 많다. 레코드 가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광주시 동구 남동성당 옆 '명음사'에 들어서자 청아한 이선호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구레코드가 2005년 발매한 히트곡 앨범 수록곡들이다. 오디오와 오래된 테이프, CD, LP가 한데 놓인 가게는 조금 어수선하다. 벽면엔 '피아노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 사진이 걸려 있다. 백전노장 70대의 아르헤리치가 각인된 나이에 강한 기운을 발산하는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이 인상적이다. 정명훈의 젊은 시절 지휘 모습, 마리아 칼라스 사진도 눈길을 끈다. 클래식 음반 명가 '성음'에서 제작한 달력과 포스터를 액자로 만들어 둔 것들이다.

명음사는 1980년 문을 열었다. 회사원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던 이선호(70)씨는 서울에서 레코드 가게를 잠시 운영하다 현 동부경찰서 옆에 가게를 열었다. '이름 있는 음악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명음사(名音社)'로 이름을 붙였다.

몇개월 후 옮겨간 곳이 양영학원 옆이었다. 인근에서 두차례 더 자리를 옮긴 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시작돼 현재 자리에 동지를 틀었다. 가장 호황을 누리던 양영학원 건을 1층에 자리했을 시절이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30여개 음반 가게가 참여하는 협회가 있어 한달에 한번 모임을 갖고는 했다. 가게는 총장로에 모여 있었다. 지금

도 영업중인 25시 음악사 사모아 레코드, 금성사 등 레코드사, 금성레코드 점도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다. LP 시대가 오면서 첩첩이 들어들었다.

"LP 시대엔 음악적으로 좋은 작품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팝송이 80%, 가요가 20% 정도 차지했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불법 해적판들이 많았는데 라이선스 계약이 이뤄지고 문공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가요 앨범이 약간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로 LP 시대엔 팝과 가요가 절반 정도였는데 CD 시대엔 가요 일색이 됐죠. '빌리진' 등이 담긴 마이클 잭슨 '스릴러' 음반은 참 많이 팔렸어요. 디스코 음악이 유행할 때까지 음반이 잘 팔렸어요. CD가 나오면서 판매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고, 음원 시대가 되면서 장사하기는 더욱 힘들어졌죠."

아쉽게도 현재 신작 앨범 판매는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신 명음사에 가면 '보물 찾기' 하는 기분이 든다. 오래된 CD와 낡은 LP들 틈새에서 내가 찾던 음반과 딱 마주했을 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명음사는 LP 음반 5000장을 구비하고 있다. CD 시대가 되면서 소매업자들은 LP 음반을 모두 제작사로 반품했지만 이씨는 일부를 남겨뒀다. 누군가 필요로 하면 판매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해온 음반들이었기에 쉬 돌려 보낼 수 없었다. 몇년 전부터 불어닥친 LP 수집 붐은 그에게 작은 즐거움을 주고 있다. 가끔 전국에서 LP를 수집하는 이들이 찾아오곤 한다. 많이 찾는 음반은 송창식 등 1970년대 포크 음반과 배호 음반, 이만영·한복남·김정구 등 1950년대 후반 음반들이다. 존 바에즈, 돈 맥클린 음반도 인기가 많고 무엇보다 고(故) 김광석 음반은 많은 이들이 찾는다.

"이런 시대가 올수록 몰랐죠. (웃음) LP 수집가들은 전국 음반 가게들을 순회해요. 1960~70년대 팝을 들었던 사람들은 LP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로 돌아가는 추억을 느끼시는 듯합니다. 아날로그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디지털 소리와 달리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테이프 전열개는 제작사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그대로 남겨뒀다. 가게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바라보면 테이프가 꽂힌 진열장이 그대로 보여 가끔 고객들이 들어와 사 가고는 한다.

아르헤리치 사진을 보고 주인장이 클래식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맞았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그는 1학년 때부터 지인 소개로 클래식 음악 모임 '무사이 음악 감상회'에서 활동했다. 총장로 미 공보원에서 진행던 음악감상회에는 성악가 박계, 강양은씨 등도 참여하곤 했다.

"총장로에서 가방 가게를 운영하던 이상옥씨가 해설을 했는데 그 양반이

를 비롯해 광주소리사, 이 대포적이었다. 빅토리아, 대포레코드 등 도매점을 달았다. LP 시대가 지나고 CD 시대가 오면서 첩첩이 들어들었다.

"LP 시대엔 음악적으로 좋은 작품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팝송이 80%, 가요가 20% 정도 차지했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불법 해적판들이 많았는데 라이선스 계약이 이뤄지고 문공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가요 앨범이 약간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로 LP 시대엔 팝과 가요가 절반 정도였는데 CD 시대엔 가요 일색이 됐죠. '빌리진' 등이 담긴 마이클 잭슨 '스릴러' 음반은 참 많이 팔렸어요. 디스코 음악이 유행할 때까지 음반이 잘 팔렸어요. CD가 나오면서 판매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고, 음원 시대가 되면서 장사하기는 더욱 힘들어졌죠."

그가 좋아하는 클래식 아티스트는 테너 스테파노와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다. 가수 깃분, 앤디 윌리엄스, 김도환이 소속된 '투코리언스'도 좋아한다. 합창곡에 관심이 많은 그는 교회 성가대에서 지휘도 하고 '부르세 남성합창단'에서도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 그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생겼다. 한창 일할 때보다 시간 여유가 생겼다 보니 오디오쪽에 관심을 갖게 됐다. 빈티지 오디오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 저것 조합해 보고, 손님들에게도 권하기도 한다.

사진 기자가 LP 음반을 촬영하는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모리시카 지휘한 소스타코비치 교향곡 음반, 정경화의 옛날 모습이 담긴 음반, 배호 히트곡 음반, 작곡가 길옥윤이 직접 노래 한 음반, 한국인들에게 유달리 인기가 많았던 이탈리아 밀바와 그리스 나나 무스쿠리 음반 등등.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주인공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양영학원 앞 카페 톱스캐빈에 다녔던 시절, 가끔 들르고는 했었으니까.

"이들 둘 다 키워 손자들까지 봐요. 큰 욕심 없이 취미로, 소일거리로 하고 있으니 가능하지 요즘 레코드 가게를 운영한다는 건 어려워요. 최근엔 LP 음반을 찾는 이들이 꾸준히 늘어서 LP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데 쉽게 염두가 안나네요."

LP판을 사이에 두고 옛날 추억을 떠올리니, 오랜만에 시간여행을 떠난 느낌이다. 누군가에게 줘버린 LP 앨범도 생각나고.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